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불확실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다른 가능성과 시도의 기회의 도전을 수 있다.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오히려 개인의 의지와 열정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는 기분 좋은, 삶에 대한 생산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의 불확실성이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무력화하는 악성 불확실성이다.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을 비웃듯이 앞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이다.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표현도 모자라서 초불확실성을 말하는 지경이다.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학자 겔브라이스에 의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는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시대"다.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란 개인의 삶에서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본과 바탕이 되는 조건이다. 지도 원리의 붕괴는 "합리와 진리, 담론 체계가 무너져 혼란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불확실해진 삶을 견뎌

이 불확실성의 시간을 건너기 위하여

야 한다면 누구나 불행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현실의 불확실한 상황들과 싸우면서 하나씩 이겨 나간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던가. 이런 이유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없다. 여기서의 불확실성은 개인의 실존적 불확실성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엄습해 오는 총체적이며 일상적인 불확실성이다.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의 이면엔 '조직화된 무책임'이 있을 때 겪는 상처와 고통은 회복되기 어렵게 심각해진다. 조직화된 무책임은 '서로에게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조직적 형태'로, 희생자가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이며 불운이라며, 개인들의 삶과 희망에 모든 책임이 넘겨진다. 나가서 조직화된 무책임의 언어가 어제까지의 판단 기준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선언하며, 심지어는 게으르고 악하며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면, 그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어렵다. 이렇게 커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은 직접 당사자에게만 아니고 모두에게 심한 불안, 공포, 혼란을 확산한다.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을수록, 자신의 삶이 외부로부터 규정될수록 일상의 악성 불확실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심각성은 경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렇게 해결될 수도 없다. 불확실성이 모두에게 똑같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계층과 성별과 학력, 세대에 따라서 파괴력이 크게 다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질수록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기가 어렵고, 미래는 더욱 예측 불가능해

고, 삶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의 힘에 내맡겨진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힘 있는 '인맥과 학맥'은 그림의 떡이고 그만큼 감당해야 하는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커진다.

현대 사회에서 겪는 불확실성은 대부분 본래적인 것이 아니다. 조직화된 무책임의 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와 관계, 책임자가 누리는 힘과 위치에 비례하는 책임 의식이 없는 곳에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큰 위력을 보인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상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모클레스의 칼'이 보여준다.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전만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지배자 디오니시오스 2세의 측근이었다. 이 참주는 늘 자신의 절대 권력을 부러워하던 다모클레스를 연회에 초대해서 왕좌에 앉게 했다. 참주의 자리에 앉아서 연회를 즐기던 다모클레스는 우연히 위를 올려다 보고 기겁했다. 머리 위에 말총 한 올에 매달린 칼이 대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배자의 자리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칼 밑에 있다'는 뜻이다. 더 이상의 긴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권좌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누리는 권좌로 얻는 힘과 이득은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설령 말단의 작은 권좌여도 같다.

통제와 지배를 위해서 양산하는 불확실성, 즉흥적 발상으로 힘을 확인하려는 이런 불확실성은 안개와 같아서 오래가지 않아서 힘을 잃기 마련이다. 불확실성의 길을 거부하며, 함께 책임을 나누는 길 위에서는 특이 그렇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어릴 적 먹은 살구는 시큼달달했다.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이내 뱉어 버린 기억이 생생하다. 꽃보다 열매에 매달렸던 시절이었으나만큼 꽃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 우리의 놀이터는 열매를 매달고 있는 나무 밑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살구에 대해서는 유독 시큼했던 기억이 거의 전부다. 그때 먹은 것은 개살구였거나 아직 채 무르익기 전이었는지 썩 나가는 맛은 아니었다. 도사 치 무르익기 전이었는지 썩 나가는 맛은 아니었다. 도사 치 무르익기 전이었는지 썩 나가는 맛은 아니었다. 도사 치 무르익기 전이었는지 썩 나가는 맛은 아니었다.

살구

1950년대에 발표된 것이고 보면, 살구는 알게 모르게 삶의 애환과 그리움을 달래 주며 고향의 원형처럼 인식되지 않았을까.

꽃만 보아서는 꽃잎인지 살구꽃인지 헷갈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살구는 '고향 까마귀' 라도 본 듯 반색을 하게 했다. 10여 년 전 튀르키예를 여행했을 때,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일이 있었다. 꽃은 잘 몰라도 열매는 흰하리라 왈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조심조심 깨물어 보았다. 여차하면 뱉어낼 요량으로. 그런데 웬걸!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은, 너무 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은 게 자꾸 입맛을 당겼다. 크기도 맛도 썩 들어온 그것의 이름은 설마 살구일까 싶었으나 정말로 살구였다. 먼 나라에 여행 와서 뜬금없이 해후한 고향의 과일이 마침내 변신에 성공한 것일까? 고향에서보다 더 살고 더 맛갈스러운 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곳마다 풍성하기도 한 그 열매를 거르지 않고 먹었다. 자르고 꺾을 필요도 없이 간편하고 단순한, 반으로 갈려진 도톰한 살집을 사근 사근 씹어 보는 순간은 유년의 나무 밑에서보다 더 달 뜨고 짜릿했다. 바깥의 새콤과 안의 달콤이 섞이어 내는 융화의 맛이랄까, 혹은 발견의 기쁨이라고 할까.

이후 유년히 살구를 탐하게 되었다. 처음엔 맛이 어떨지 몰라 망설이며 샅가 사고 또 샅가. 살구도 일취월장 변화를 도모한 것일까? 아니면 '시큼'을 '상큼'으로 느끼는 내 미뢰의 착각일까. 유년의 기억과는 확연히 다른 맛에 흡사나 무엇에 홀린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다. 가령 살구의 몸속에는 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절신히 들렸는지도 모른다거나, 노랑만도 아

니고 빨강은 더욱 아닌 고아 우미한 살빛에 양귀비 뺨치는 재색을 경미해 놓았거나, 아니면 형용하기 어려운 은미한 매력에 어쩔 수 없이 빨려들게 되거나...

머칠 전 문득 살구나무를 만났다. 노란 열매들을 방울처럼 매단, 언제 꽃피고 언제 열매 맺고 언제 익었는지 모르겠는, 염치 불고 반가운 나무였다. 하지만 어쩌면 나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씨알도 굵고 껍질도 고운 놈들이 벌써 팔팔을 뒹굴고 있는 것이라니. 주섬주섬 주머니에 모셔두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기특하고 어여쁜 것들이 울망울망하였다.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서슴없이 후두둑 툭 툭 열매를 떨어뜨렸다. 미련 없이 가벼한, 굵고 짧은, 단단하고 묵직한 낙하였다. 잠깐의 머뭇거림도 없이 툭, 직진으로 투항해 버리는 전사의 최후 아니 최후의 전사였다. 그 깔금한 종결을 대치는 부드럽게 받아 안았다.

몇 번 더 나무 밑을 서성였다. 다행히도 여전히 우리 동네 사람들은 참 욕심이 없다. 황금알이 바닥을 구르는데도 탐내는 사람이 없는 듯하다. 사 먹는 것도 맛있지만 나무 아래서 주운 놈은 더 맛있는데 말이다. 덕분에 독자지하는 복락까지 한꺼번에 누리느라 아주 행복해 미치겠다.

살구는 보관이 어려운 만큼 시기를 놓치면 먹기 어려운 과일이다. 물론 말리거나 졸여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지만, 그건 살구의 본맛에서 멀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살구는 원형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탕글탱글한 맵시와 아늑한 살빛과 새콤달콤한 맛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한 며칠 짧은 축복을 누리 보는 것이야. 살구빛처럼 그윽하게 보는 것이다.

유럽의 바람 속에서 은유의 철학을

는 오래된 건축물의 매력은 탄성을 불렀다. 로마에 있지 않은 로마 광장 중앙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저울과 칼을 들고 시형사를 바라보고 있다.

이번 답사의 요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 '니체'다. '니체'는 현책방에서 구입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꼬박 2주 동안 탐독하고 '이 책은 꼭 나를 위해 써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라는 진리를 죽임으로써 신을 죽인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우리가 죽인 신이 만들었던 영원 불멸의 시스템은 행복과 슬픔, 분노, 공포, 모든 감정을 허무하게 만든다. 이 길 위에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프랑크푸르트의 지식 브레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회조사연구소를 거쳐 쇼펜하우어의 묘지를 찾았다. 가는 길은 표지판을 찾기 쉽지 않았지만 사진과 색색의 꽃들이 낭만적 거미줄처럼 조화를 이룬 길은 이 여행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성적인 길 위에 서게 될 것인지 알리는 나침반이었다.

칸트, 헤겔, 바그너 등 당대의 철학자와 예술가들 사이에서 인간의 본질을 의지의 표현이라 강하게 주장했던 쇼펜하우어의 검은 대리석 묘지에는 그의 이름만 소박하게 새겨져 있다. 일행은 흰 장미를 놓고 번갈아 셔터를 눌렀다. 햇살이 꽃잎에서 또르르 흘러내렸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득히 부서졌다.

인문 철학 답사만을 이끌며 여행을 총괄하신 성진기

전남대 명예 교수님이 연구 교수로 머무르셨다는 800년 역사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둘러본다. 이 대학 도시에는 많은 시인·예술가·사상가 학자를 배출하며 독일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유럽 학문의 중심에서 밀려 나지 않고 인문학 분야의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

작은 카페와 도서관, 책방, 고풍스런 교회, 박물관 등이 늘어진 정갈한 거리를 걸으며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한다. 격식에 얽매인 삶의 틀이나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갈망을 스스로에게 불었다. 구시가지와 네키어 강을 굽어 볼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고성엔 과거에 대한 동경과 임기와 보기를 함께 보여 주었다.

대학을 나서 네키어 강변의 다리를 건너면 '철학자의 산책길'이지만 여정상 멀리 바라보고 '황태자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곳도 주변만 보았다. 스트라스부르로 이동, 리슬링(Rising) 포도주를 시음할 수 있는 '리키에르'와 시나 관광을 하며 독일의 속살과 관념적이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이외에도 스위스 취리히 베니스 나폴리 로마 폼페이 답사를 통해 우리는 인문 철학의 예리한 사실주의를 체험했다. 물론 지면 관계로 다 담을 수 없어 이 기고는 여행의 서문인 셈이다.

앞으로 우리의 관광 여행도 단순 관광보다는 다양한 테마를 정해서 목적에 충실한 여행을 하는 것이 정체성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社說

민선 8기 2년차 주민 체감하는 변화 이뤄야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가 2년 차를 맞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광주·전남 지역 27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저마다 취임 1주년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3년의 정책 비전을 밝히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광주시의 지난 1년 성과로는 강기정 시장이 공약한 '5+1' 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올려놓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과 복합 쇼핑몰, 지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지산 나들목 활용, 백운광장 지하차도 등 다섯 가지 목은 현안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군 공방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및 대구시와 공조를 통해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 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과 공공기관 통폐합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민선 7기에 이어 김영록 지사가 이끄는 전남도는 국고 예산과 우주발사체 테마파크 등 100건의 신규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해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2018년 7조 5000억 원이던 예산은 5년 만에 12조 6000억 원으로 늘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과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과제도 산적해 있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군 공방 이전은 주민 반발 등으로 후보지 선정까지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과 복합 쇼핑몰, 지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지산 나들목 활용, 백운광장 지하차도 등 다섯 가지 목은 현안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군 공방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및 대구시와 공조를 통해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 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과 공공기관 통폐합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강 시장이 광주의 새 비전으로 제시한 '신경제 지도'나 김 지사의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전남' '남해안 프로젝트' 등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립제1·2요양병원의 경영난 해소와 국립과거대학의 전남 유지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사고몽치 한빛원전 수명 연장 무리수 아닌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냉각수 누수가 발견됐다. 한데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절차를 공식화하고 나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8일 계획 예방 정비 중인 한빛 5호기의 원자로 격납 건물 내 안전 주입계통에서 소량의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냉각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 가동 중 누출될 경우 원자로 내 핵연료가 녹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다행히 정비 중에 발견돼 피해는 없었지만, 2020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와중에 오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각각 40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1·2호기의 연장 운영을 위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

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가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했는지 심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계속 운전 기간의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민과 환경단체는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원전은 그동안 격납건물 내 수십 개의 공극과 철물 부식이 발견되는 등 100건 가까운 사건·사고가 잇따라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의 주민 설명회·동의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개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명만료 전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는 원전 기능으로 발생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가동 연장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밀 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신안군 흑산도는 고대부터 국제 항로 가운데 하나였다. 송나라 사신 서공(徐兢)은 1123년 고려 인종 때 고려함을 밧았다. 중국 명주에서 출발해 흑산도를 거쳐 서해안을 타고 북상해 고려 외항인 예성강에 도착했다. 그는 고려 정세·풍속 등을 글로 남긴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흑산도를 언급했다. "옛날에는 이곳이 사신의 배가 묵는 곳이었다. 관사도 아직 남아 있다." 아쉽게도 서공은 흑산에 기착하지 않아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나 흑산도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신안의 고대 풍경

일본 승려 엔닌(圓仁)은 신라 문성왕 9년(847년)에 흑산도를 거쳐 당나라로 들어갔다. 그는 '입법구당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記)에서 "흑산도는 동서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백제의 제3 왕자가 도망쳐 피난한 곳인데, 삼사백 호 민가가 살고 있다"고 기록했다. 지난 1975년 발견된 '신안 보물선'은 국제 무역 항로였던 신안을 대변한다. 이 배는 1323년 중국 경원(현재 닝보)항에서 출발해 일본 히카타항으로 항해하다 신안 앞바다에 침몰했다. 최근 흑산도 상라산 동쪽 기슭에 있는

무심사가 발굴 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이 두 동, 축대, 석렬 네 기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인화문 토기편을 비롯해 금동불상·발명, 중국제 도자기편, 인화문 막새편 등이 출토됐다. 무심사지 주변 상라산성, 제사터, 관사터 발굴 조사에서는 중국제 동전과 도자기도 무더기 발굴됐다. 유물들은 신안이 통일신라부터 고려 때까지 동아시아 남방항로의 해상 무역 거점항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11년 안좌도 '배널리 고분'에서는 5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투구·갑옷·칼·창·화살촉·장식구(옥) 등 무기가 다양

발굴됐다. 이를 무기류는 신안이 군사 요충지였음을 말해주는 방증이다.

아름다운 1004섬을 보유한 신안의 감춰진 역사가 신안군의 노력으로 새롭게 조명돼 반갑다. 꾸준한 발굴이 이어지고 학계의 연구가 보태진다면 신안은 역사적으로도 보배로운 섬이 될 것이다. 신안이 섬의 풍광을 즐기려는 일차원 관광을 넘어 우리 고대사까지 되새기는 장소로 거듭나면 더 좋겠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기고



김정희
시인·몽클레스 회원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알랭 드 보통의 글이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장소, 풍경의 도움으로 내적인 사유를 깊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철학한 '몽클레스' 회원과 일반인 참여자 등 22명의인문·철학 테마 탐험대(?)를 조직 서유를 향해 떠났다. 하지만 우리가 텍스트로 읽던 자기 극복의 위버멘슈 정신, 긍정의 에너지는 인연을 출발해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닿을 때까지 좁은 좌석 탓에 허공에 머물고 있는 새처럼 신경도 예민해지고 불편했다. 니체가 말하는 춤은 자유롭고 행복과 기쁜 것이며, 새는 그 자유로움의 상징이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길은 멀었다.

이국적 정서를 처음 느끼게 하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간판을 힐끗 읽고 메인강과 독특한 모양의 지붕을 가진 구시청사, 과거집 같은 오스트차일레가 있는 로마 광장을 향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를 상상하게 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